악취 기준 어제까지 낮춘다던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

3개월 유예 요청…또 허송세월

3차점검 나흘 앞두고 "기간 더 달라"…서구청 검토 나서

700억원을 들여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 건설한 광주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이 법정 기준치를 최대 4배 이상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광주일보 5월13일 6면〉되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설 운영기관인 광주환경공단이 관련법에 따라 12일까지 기준치 이하로 악취 배출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광주 서구청에 시설개선을 하겠다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점검기관인 서구청에 의해 지난해 10월 첫 기준치 위반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2차례 개선권고를 받으면서도 1년 이상 허송세월해 인근 주민과 통행차량 운전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서구청은 12일 광주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 중인 광주환경공단이 지난 8일 개선권고 기간 유예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이 15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해 기준치 이하로 악취 배출을 낮추겠다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또 다시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6월 준공된 광주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가동 4개월만인 그해 10월께 자체 조사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치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서 부실설계·부실시공 의혹이 일었다. 이후 2차례 주민 민원을 받고 점검에 나선 서구청 조사에서도 악취방지법상 기준치인 '희석배수 500배'를 6배 이상 초과한 '희석배수 3000배'의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 초과 배출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는 광주환경공단과 시공사 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지켜보면서 눈치만 살필 뿐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반입 용량을 지켜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과 투입됐던 음식쓰레기 물량을 민간업체로 돌렸지만, 악취는 계속 발생하고 예산 부담은 커지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기준치를 몇배 이상 초과 배출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광주환경공단이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상응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할 수 없는 만큼, 검토를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보건환경원 점검에서도 5배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배출이 드러났다. 15억원을 들여서 조만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으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시정 질문에 나선 이정현 광주시의원도 "준공한 지 2년밖에 안된 시설을 놓고 시공사와 운영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

사랑의 연탄 배달

12일 광주시 북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북구 신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중흥동 한 저소득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북구지역 저소득가정 15세대에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통지옥' 계림동 화상경마장 대책기구 만들어야

공용주차장 건립만으론 한계
광주시·동구청·마사회 참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화상 경마로 인해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이하 광주마사회) 주변의 주차 문제〈광주일보 9월15일 1면〉의 근본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동구청, 마사회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동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이지만 정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계림동지역 학부모들은 교통난 외에도 "마사회로 인해 교육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조세철(동구2) 의원은 12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00년 화상경마장 개장 이후 금~일요일이면 계림동 일대는 교통지옥으로 변한다"며 "화상경마장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 해소와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사회와 광주시, 동구,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화상경마장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고등학교가 있고, 4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학생들이 화상경마장과 인근 성인오락실,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불편은 15년째 계속돼 왔지만 교통난 유발자인 광주마사회,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광주시, 이를 단속하고 관리할 동구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15년간 거둬들인 세금은 광주시가 2365억4400만원, 동구는 47억원이다. 반면 경마가 열리는 날 1일 방문객이 3090명, 1일 방문차량은 1100대에 이르고, 인근 골목길과 도로변 주차차량은 평균 601대에 달한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거둬들인 세금은 계림동 지역 시민들의 15년 고통의 대가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의 교통난 등 복지와 환경 개선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시와 동구가 30억원(국비 15억·시비 7.5억·구비 7.5억)의 예산을 들여 인근에 70~80면 규모의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마사회는 30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동구에 "당장은 어렵다"라고 지원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광주마사회에 주차장 조성재원 분담과 부설주차장 활용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며 "당장 공용주차장을 짓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는 점과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광주 근로자 2명 수은 중독 산재 신청

조명업체 공장설비 철거 담당

광주 하남산단 내 한 조명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 작업을 담당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하며 노동청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과 8월12일 유모(55)씨와 김모(60)씨가 각각 공장 설비 철거 작업 중 수은에 중독됐다며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재를 신청,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씨 등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조명생산업체 공장 설비 철거 작업 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이후 원인 모를 구토와 피부발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인의 3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유씨 등은 절단한 생산설비를 운반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초 형광램프 생산 라인을 폐쇄했으며, 해당 시설을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 작업은 한 토건 회사에 맡겼고, 이 업체는 다른 하도급업체에 재하청했다.

노동청은 이 과정에서 '생산 설비에 수은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운반 과정에서 은색 액체 덩어리가 바닥에 수시로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어 함께 일했던 다른 7명의 피해 여부도 파악 중"이라며 "10여 년 전에 수은 중독 사례가 드물게 있었지만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노동청 등은 조사를 통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가슴확대수술 후 사망 40대 원인은 패혈증

유족측 의료사고 주장

광주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고 나서 10일 만에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조사된 가운데 유족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가슴 성형수술을 받고 숨진 A(여·43)씨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패혈증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숨지게 한 패혈증의 발생 원인이 가슴 수술을 한 병원 측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광주시 서구 모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서 통증을 호소,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40분께 숨졌다.

당시 경찰의 1차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패혈증으로 말미암은 합병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유족은 평소 건강했던 A씨가 수술 뒤 갑작스럽게 패혈증으로 인해 숨진 데다 수술에 참여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 들어온 점 등을 이유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와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가 의료법 위반인지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경제 살려주세요"…알고보니 사기꾼

농협·경찰 사칭 15억대 방문 판매 일당 적발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지역 농협직원이나 경찰 관계자를 사칭, 전국을 돌며 건강식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은 방문판매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농협 직원을 사칭한 김모(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400여명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진도 울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임의 제작한 진도농협 명함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한 뒤 진도 울금을 판매한 권모(5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구대장을 사칭, 관할 지역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진도 울금을 구매해달라"라는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지역 음식점 직원 15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관으로 사칭한 권씨 등이 음식점에 전화해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경제를 살려달라"고 말한 뒤 농협 직원이나 진도 농민을 가장한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식이었다. /연합뉴스

재력가 행세 여성 14명 등쳐

쌍나팔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성들로부터 3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상습 사기범이 철창행.

○…12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결혼 사기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한 최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미혼여성 14명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무직인 최씨는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고다니며 재력가·프로골퍼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외제차 렌트비와 경마도박에 탕진.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펜션·박물관·미술관·식당·찻집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법인체 인수가(이전비 없음)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슴(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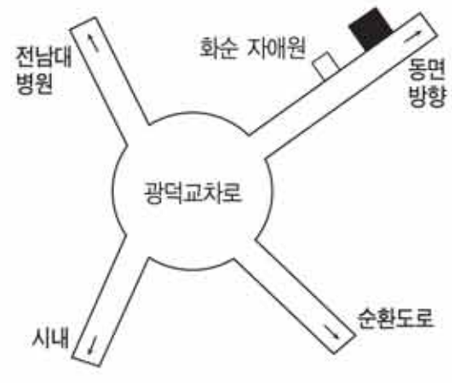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매매 - 22억
동업 - 협의
임대 - 협의
투자 - 협의

주인직매 H.010-3605-5000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전원주택부지



주인직매 H.010-3605-5000

경매 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배우면서 투자 가능
▸투자 하실 분!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수익률 - 연 10% 보장

(주)오 천 경 매
H.010-3605-5000